

초·중·고 학생 1.2% 학폭경험... 최다 피해유형 '언어폭력'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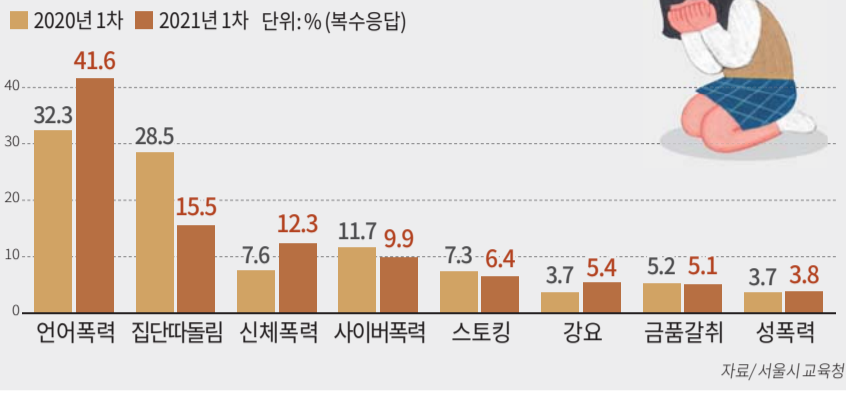
학폭경험 비중 초 > 중 > 고 순
5건 중 1건 교실 안에서 이뤄져
신고응답 90%, 전년대비 6%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소폭 줄었던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학교폭력이 늘었다. 중·고교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2%(6913명)로 지난해 1.1%(5069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등교수업 축소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2%던 2019년과 비교하면, 0.8%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1%인 5649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으며, ▲중학교 0.5%(913명) ▲고등학교 0.2%(328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 비교



전년 대비 초등학교에서는 1.0%p 증가했고, 중·고교는 각각 0.1%p 감소했다.

피해유형별 비율(복수응답)을 보면 '언어폭력'(4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5%) ▲신체폭력(12.3%) ▲사이버폭력(9.9%) 순이다.

특히 언어폭력(9.3%p 증가)과 신체폭력(4.7%p 증가)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 간 만남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따돌림(13.0%p 감소)과 사이버폭력(1.8%p 감소)은 줄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5건 중 1건은 '교실 안'에서 이뤄졌다. '교실 안'에서의 학폭 경험 비율은 20.2%다. '학교 밖'(46.4%)에 비해 '학교 안'(49%)이 높았다. '학교 밖' 비율은 전년(35.7%) 대비 10.7%p 큰폭으로 증가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9.8%로 전년 대비 6.1%p 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응답률은 0.3%

(1853명)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0.8%(1486명) ▲중학교 0.2%(297명) ▲고등학교 0.0%(65명) 순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초등학교만 0.2%p 증가했다.

학교폭력 목격학생 응답률은 2.7%(1만4998명)다. 전년 대비 0.1%p 감소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7% ▲중학교 1.7% ▲고등학교 0.6%로,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1.0%p 상승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4%p, 0.3%p 감소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매해 줄지 않고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며,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데 머물지 말고 학교 어려움 실태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5일부터 2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55만 8603명(88.1%)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김태민 인천대 교수 논문 '광고저널' 온라인 게재

인천대학교는 김태민(사진)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논문(1저자: 김태민 교수, 2저자: 미국 템플대학교 제니 퍼블 교수)이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광고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학술저널의 학계내 평가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저널 인용 리포트(JCR)에 의하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2019년 기준으로 광고학이 포함된 전체 커뮤니케이션학 내 전세계 1위 저널이다.

김태민 교수의 논문은 기업들이 광고에서 흔히 사용하는 따뜻한 광고소구와 메시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결과다.

/이현진 기자

결제까지 해야 접수완료... 대학별 원서 외 필요서류 확인

2022 수시 원서접수 D-4

진학사·유웨이서 원서접수
모바일 미지원... PC 활용해야

오는 10일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제는 10일부터 14일 중 3일 이상, 전문대학(교)은 10일부터 내달 4일 중 접수가 이뤄진다.

수시 원서접수는 '진학사 원서접수'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미리 가입하고 홈페이지 안에 공통원서접수 탭에 들어가 기본 기록사항을 기록해두면 좋다. 단, 모바일 원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 기반의 PC에서 회원가입 및 원서 작성을 해

야 한다.

◆**졸업생은 수상실적 학기당 1건...공통원서는 '필수'·공통자기소개서는 '요구시'**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졸업생은 수상실적을 학기당 1건, 총 6건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대학별 접수 페이지 내 '수상실적 정보'에서 학생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수상경력' 중 학기당 1건의 수상실적을 선택해 기재한다.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먼저 공통원서는 수시 지원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공통원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교정보,

한불계좌 입력란이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하는 전형에서 요구할 때만 작성하면 된다.

◆**원서만 저장 후 결제까지 완료해야...수정은 결제 전까지만 가능**

원서접수는 원서작성 및 저장 후 결제까지 해야 완료된다. 결제 후 수험(접수)번호를 확인했다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수험생들이 접수 마감 시간까지 경쟁률을 확인하며 고심하다 보면, 간혹 결제하다가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정이나 삭제는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 원서 저장만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

다. 결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작성한 후 결제해야 한다.

◆**원서 외 제출 서류 확인 필요...재수생 지난해 아이디 사용가능 여부 확인해야**

지원 대학, 전형, 학과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면 지원결격 사항에 해당돼 불이익을 당한다.

재수생의 경우 지난해 수·정시모집 때 접수했던 아이디로 로그인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최재원 박사



김민재 박사

인하대 화학공학과 졸업생 국내 유명 대학 교수 임용

인하대학교는 심상은 화학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고분자공학연구실 출신 졸업생들이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로 연이어 임용됐다고 6일 밝혔다.

인하대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연구실 최재원 박사(38)와 김민재 박사(36)는 각각 경북대 고분자공학과와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돼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최재원 박사는 인하대 화학공학과에서 2011년 2월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고분자과에서 2017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와 터프츠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올해 2학기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최 박사는 고분자 구조 및 물성 분야를 전공하며 석·박사 학위기간과 박사 후 과정 기간 동안 SCI급 20편, 국제학술대회 14건, 특허 3건을 발표했으며, 2013년에는 삼성장학회(구, 삼성이건 회장학재단)에서 11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박사과정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김민재 박사는 인하대 화학공학과에서 2017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18년 동 연구실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이후 삼성SDI연구소에서 책임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올해 2학기 한동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박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및 고분자 탄소 소재 분야를 전공하며 학위기간과 박사 후 과정 기간 SCI급 20편, 국제학술대회 4건을 발표해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

올해 수능 50만명 본다... 재수생 비율 급증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올해 고3인 '2002년 월드컵둥이'(2002년 임신해 2003년 출생한 아이)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가 2년 만에 50만명대를 회복하며 반짝 증가했다.

최근 수능 위주전형 증가 추세에 올해 첫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이과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과 수험생이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3일 마감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 수는 50만 9821명으로 전년(49만3434명) 대비 3.

3%(1만6387명) 증가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037명 증가한 36만710명(70.8%), 졸업생은 1764명 증가한 13만4834명(26.4%),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86명 증가한 1만 4277명(2.8%)이다.

특히 올해 2월 졸업생(43만7950명) 중 수능에 재도전하는 지원자는 13만 4834명(30.8%)으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6학년도 당해 졸업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27.9%로 최고였고, 지난해 졸업생 대비 재수생 비율은 26.5%였다. 입시 업계에서는 최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졸업생 강제가 이어지고 최근 검정고시생도 연속증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성신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

서울시 3년간 최대 15억 지원

성신여자대학교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2022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대학이 주변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성신여대는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는다. 본 사업에는 성신여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성신여대는 이번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에 '성신-수유 문화예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사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의

활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강북구 및 성신여대 소속인 문화예술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유도해 지역 문화예술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신여대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 '오작교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수유향유' ▲문화예술 창업 프로그램 '수유예술창업마을'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신여대는 2018년부터 강북구와 협력해 문화예술 분야 창업가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